



미래형 이동전화 개발·표준화기구 만든다

IMT2000을 이룰 미래형 휴대폰의 개발 및 표준화를 논의할 기구가 설립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고선명(HD)의 디지털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미래형 휴대폰의 연구개발과 기술표준화를 검토하는 실무자회의를 구성, 금년 봄부터 작업을 개시키로 했다.

각국 정부 대표를 비롯해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와 통신기기 업체 등이 참여하게 될 이 실무자회의는 단말기를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美 디지털위성방송 가입 급증

미국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다채널 방송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서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방송 등을 포함하는 다채널 방송의 가입가구는 '99년 6월 말 8,090만 가구로 1년전에 비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디지털 위성방송 가입은 1,010만 가구로 39%라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해 다채널 방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5%에 이르렀다.

케이블TV 가입은 6,670만 가구로 전체의 82%를 차지하며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신장률은 2%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日 우정성 NTT, '데이터 방송' 허용

일본전신전화(NTT)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방송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은 「NTT법」상의 NTT방송사업 참여 규제 규정을 대폭 완화, 올

해말 개시 예정인 방송위성(BS)디지털 데이터방송 추진을 위해 NTT도코모·NTT데이터 등이 공동 설립한 합작사의 사업을 인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정성은 이와 함께 케이블TV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송신만을 하는 사업 면허를 창설해 NT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日 우정성, IMT2000사업방향 발표

우정성은 2001년 개시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IMT2000」에 관한 주파수와 사업 면허 할당 방안을 발표했다.

우정성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2GHz대의 주파수를, 1개 사업체에 최대 15MHz대역까지 할당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PHS 시스템의 전파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PHS 주파수대에 인접하는 5MHz 대역은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 면허는 동일 사업구역에서는 최대 3개 사업체에 할당하고, 인가된 사업체는 서비스개시 수 5년 이내 서비스 지역의 인구 커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진출 사업자는 IMT2000 시스템의 구축 기술이나 시스템 운용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日 방송위성 디지털 방송 8社, 6월부터 시험 전파

일본의 방송위성(BS) 디지털방송이 연말로 예정돼 있는 본 방송에 앞서 오는 6월 실험방송에 들어간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BS디지털방송 보급 및 촉진연합회의의 사쿠마 의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신기가 발매되는 오는 6월을 목표로 NHK, 와우와우(WOWOW), 민간 BS 방송사 등 8개사가 디지털 하이비전 실험 방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日, 위성데이터방송·인터넷 연결하는
새 EC시스템 개발 추진**

일본 우정성은 연말에 시작되는 위성데이터 방송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마쓰시다, NTT, 로손 등과 같이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3월 12일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편의점이 각 가정의 TV에서 데이터방송을 통해 상품정보를 내보내면 이용자가 TV를 보고 간단히 상품을 주문, 집까지 배달되는 방식으로 돼 있다.

**美 스페이스하브사, 지구상공에
'우주포털' 시스템 설치 추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등 16개국이 오는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ISS)」에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획을 스페이스하브라는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추진하고 있다.

ISS는 무게가 1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 연구소를 지구상공 250마일 지점에 건설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만 무려 6,000억달러에 이른다.

스페이스하브는 우주 정거장에 설치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지구촌 사람들에게 우주인들과 대화하는 등 「가상 우주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개발한 과학 실험을 우주인들이 대신해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이 사이트를 명실상부한 「우주 포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美 퀄컴사, 日 교세라에 이동전화
제조부문 매각**

퀄컴이 일본의 교세라에 이동전화 제조 부문을 매각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퀄컴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기반 통신 단말기 제조 부문을 교세라에게 넘기고 앞으로 5년간 CDMA칩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교세라에 판매하기로 했다.

퀄컴은 CDMA 기술사용료 회수와 CDMA칩 제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atellite 2000, 위성턴 개최와 주요
뉴스**

• 위험한 소규모 위성서비스 업체

선 글로브 회장, 배리 패스터닉은 지구국들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소규모 위성서비스 업체들이 궤도상에 있는 다른 위성들에 손상을 주고 방해할 정도로 미흡한 수준의 운용을 하고 있다고 위성턴에서 열린 Satellite 2000(2월 1일~2월 4일)에서 지적했다. 그의 회사는 Satmax 5와 Solidaridad 2 위성 사용에 관해 새로 시작하는 업체들에게는 리스체결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위성서비스 업체 안의 위성 운용자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훈련된 기술자들이 적고, 아주 기본적인 기술에 관해서도 그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위성서비스 산업의 팽창과 발전에 따른 전문인을 교육할 만한 학교와 기관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했다.

• 인텔셋과 유텔셋 사설화

인텔셋과 유텔셋이 그들 기관의 정부 소유권을 없애고 사설화하기로 한 것에, GE Americom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GE Americom의 회장 존 코넬리는 이들 두 기관의 사설화는 그 이름뿐이며, 그 기관의 회원으로써 각국 정부들은 계속해서 사설 기관들과 함께 경쟁하고 그들 국내 시장의 소유권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위성턴의 인텔셋과 파리의 유텔셋은 모두 2001에 사설화할 계획이다. 현재 그 기관의 많은 소유자들은 사설 통신 업체로 그 형태를 바꾸고 있으며, 다수는 주 소유형태로서



그들 시장 안에서 독점 업체와 함께 남아 있다. 인텔셋 사무총장 코니 쿨멘은 만일 미국 국회가 인텔셋의 사설화에 강력한 조건들을 요구할 경우 인텔셋 본부를 미국에서 철수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존 코넬리는 인텔셋이 그들 기관에서 정부 기관들을 소유자로서 유지한다면 미래에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리안 스페이스, iSKY와 전격 계약

아리안 스페이스는 Satellite 2000 기간동안 iSKY에 1억달러 이상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신 두 개의 Broadband 통신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 전 Ka-Star로 알려 졌던 iSKY는 그 첫 번째 위성 제작을 스페이스 시스템/로탈 팔로알토에서 맡기로 되어있다. 이 위성은 북미 지역에서 인터넷망을 가정과 회사로 제공할 예정이고 2001년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위성은 아리안 스페이스와의 계약을 토대로 2002년 중반에 발사 예정이다.

• 불필요한 규제 반대를 위한 기관들의 연합

브라질, 인도, 아시아·태평양, 러시아, 유럽과 미국을 대표하는 7개의 위성 기관들이 위성서비스 비용 절감,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로비 활동 협력에 동의했다. 2월 2일 체결된 이 동의서에는 유엔과 WTO가 통신 접근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위성 통신 관련 정책면에서 이를 저지하고 있는 요소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위성 통신 발전과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위해 협력하기로 서명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 위성 통신 협의회(Asia-Pacific Satellite Communications Council), 글로벌 브이셋 포럼(Global VSAT Forum), 미 위성 산업 연합회(US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인도 브이셋 서비스 연합회(VSA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of India), 러시아 국립 위성 통신회(Russian National Assembly of Satellite Communications), 위성 활동 계획과 정책에 관한 그룹(Satellite Action Plan-

Regulatory Working Group), 브라질 위성 통신 서비스 연합회(Brazilian Association for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아시아셋, 인도 사하라 TV와 리스 계약 체결

아시아셋(The Asia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Company)은 인도 사하라 TV와 AsiaSat 3S 의 36MHz C-밴드 Transponder 사용 계약을 맺고 다양한 오락 채널을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셋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채널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아시아셋 사용에 관한 계약은 인도 방송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도 사하라 TV로 인해 인도 전역의 케이블 TV 운송자 뿐 아니라 거대한 인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셋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이상에게 위성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90개 이상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채널, 100개 이상의 라디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는 2억 5천만 위성 시청자들 중에서 7천만 인구에 이르고 있다

타이완 PDM, 대화형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최근 타이완 정부로부터 위성 사업 허가를 받은 「퍼시픽디지털미디어(PDM)」사는 '99년 11월 중순 개통식을 갖고 다채널 위성방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PDM사가 제공하는 DTH(Direct-To-Home)서비스는 45~60cm 위성안테나, 디지털 셋톱박스, 스마트 카드 등 기본 장비를 갖춰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내국인 채널과 함께 CNN, BBC월드, 애니멀 플래닛, 프랑스의 TV5, 독일의 DW-TV, MCM음악 채널, 패션 채널, 블룸버그 경제 채널, 한국의 아리랑 TV 등 해외 방송 채널을 이미 공급하고 있거나 조만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영화



팬들을 위해 HBO, 시네맥스 등 유료 채널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PDM사는 대화형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화형 TV방송 서비스 분야의 강자인 「오픈 TV」와 제휴하고 있다.

이란, 위성 개발

이란은 중국, 태국과 함께 소규모 다목적위성 개발을 통해 장거리 통신망과 모니터링의 수요를 충족키로 하겠다고 최초로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이란, 태국이 각각 70, 20, 5 퍼센트 비율로 소유하며, 16개의 버스 제조, 구조 디자인, 열처리 시스템, 위성 조정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란은 정보 수집과 운송 시스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러, 중국과의 위성 시스템 동반 관계 가능

러시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에 Glonass 위성 시스템 사용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의 Global Positioning 관측 시스템 사용권과 비슷한 관계가 될 것이다. 러시아 수상 일리아 클레바노브는 중국 국방성 장관과 모스크바에서 가진 회담 후 기자들에게 군사 기술 협력에 관해서는 양측이 모두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렀음을 표명했다.

위성 시스템과 관련해 이번 협력은 경제적으로도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간의 새로운 계약에 관한 가능성도 접쳐지고 있다.

스웨덴 에릭슨, CDMA 웹단말기 북미지역 공급강화

GSM(유럽형디지털이동전화표준)에 주력해 온 에

릭슨이 CDMA(부호분할다중접속)시장 진입을 가속화한다.

에릭슨은 최근 WAP방식 무선 인터넷접속 웹브라우저를 채용한 CDMA단말기(모델명 A1228c)를 출시, 북미시장에 공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무선인터넷 전용 단말기로 크기 51×130×25mm, 무게 173.6g으로 101×40 픽셀(pixel)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채용, 휴대폰으로 인터넷접속 및 검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래피드차저(Rapid Charger)기술을 사용, 1시간 안에 완전충전이 가능하고 통화 및 통화대기 시간을 최대 5.6시간과 225시간으로 연장했다. 동사는 우선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제품을 출시, 본격적인 CDMA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연내 국내시장에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정부 위성 투자

브라질 정부의 과학 기술부는 앞으로 4년 동안 2천 8백만 달러 가량을 국립 우주 연구소에 지원하여 위성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브라질과 프랑스간에 개발중인 과학용 마이크로위성은 SACI 위성의 발전된 단계가 될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두개의 SACI가 실패로 끝났는데, SACI-1은 우주의 미아가 되었고, SACI-2는 브라질 VSL발사의 실패와 함께 좌초되었다. 그러나 브라질 국립 연구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SACI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차세대 위성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덧붙여, 이 개발 자료들은 이는 아르헨티나와 협력 하에 중국 소유의 관측 위성 CBERS 2 Bird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위성에 의한 버스 추적 시스템

캐나다 정부는 오타와 버스들의 정확한 위치 관측을 위한 위성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운전자들이 정해진 노



선을 벗어나더라도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버스 이용객들은 전광판을 통해 주요 노선과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 이 21세기형 대중 교통 수단을 위해 OC운송 회사는 440만 달러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20개 버스 노선이 이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 내에 전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텔레콤, IMT2000 사업 참여 발표

일본철도(JR) 계열 사업자로 휴대폰과 PHS 사업자를 두고 있는 일본텔레콤이 지주회사 형태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진출을 추진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영국 휴대폰사업자 보다폰에어터치, 브리티시텔레콤(BT) 등과 합작으로 설립한 사업기획사가 산하의 휴대폰사업자인 J폰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해 IMT2000사업에 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J폰이 올 봄의 사업 면허 신청과 기지국 정비 등 실질 업무를 추진하고 지주회사는 설비 투자 자금의 조달을 맡게 된다.

日 미쓰비시, GSM방식 단말기 증산

미쓰비시전기가 유럽용 휴대폰 단말기의 생산 규모를 대폭 늘린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프랑스의 휴대폰 생산거점을 확장, 올해 GSM방식 단말기의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30% 많은 130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쓰비시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프랑스 생산자회사인 미쓰비시일렉트릭프랑스에 새 공장 동을 건설할 예정이다. 프랑스 휴대폰 생산거점의 생산력을 늘리는 것은 유럽의 휴대폰 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쓰비시는 이번 증산을 계기로 현재 약 5%로

추정되는 유럽 시장점유율을 13%로 높여 노키아, 에릭슨, 모토롤리, 마쓰시타통신공업 등에 이어 5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日 DBS, 위성방송 고객 관리회사 설립

일본의 위성방송인 스카이퍼펙TV 사업자 디지털브로드캐스팅서비스(DBS)는 2001년 새 통신위성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고객자료관리를 위해 NTT이스트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합작회사는 자본금 1억엔으로 설립되며 양사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DBS는 일본 동경 110도 상공에 쏘아 올릴 통신위성을 통해 약 40개 텔레비전 채널을 방송하는 새로운 위성방송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日 산요전기, CDMA단말기 배증

산요전기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휴대폰 단말기와 디지털카메라를 증산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산요전기는 올해 CDMA단말기 생산을 전망치의 약 2배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산요의 CDMA단말기 생산은 '99년 국내 출하량 약 90만대와 한국, 미국 등으로의 수출을 합쳐 총 230만~2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요가 CDMA 단말기를 증산하는 것은 올 봄을 기점으로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카메라도 증산, 올해 생산 규모를 '99년 생산보다 40% 많은 3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日 마쓰시타, 美수출용 휴대폰 생산 재개

마쓰시타통신공업이 대미 수출용 휴대폰 단말기



의 생산을 재개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마쓰시타는 금년 5월 시분할다중접속(TDMA)방식단말기를 이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단말기를 각각 생산·수출할 계획이다.

마쓰시타는 미국에서 아날로그방식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해 왔으나 디지털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98년 사업을 철수했다.

마쓰시타가 미국용으로 생산하는 디지털 단말기는 미국업체 표준인 IS136에 기반한 TDMA방식으로 영국과 중국, 필리핀 등의 공장에서 합계 1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쓰시타는 이미 자국내에서 생산해 DDI와 일본이동통신(IDO)에 납품하고 있는 CDMA방식 단말기를 올해 말에서 2001년 봄 사이에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日 히타치, 퀄컴과 이동 통신 제휴

히타치가 미국의 퀄컴과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을 위해 제휴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히타치는 퀄컴이 개발한 HDR(High Data Rate)시스템의 장비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한다. HDR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에 기반을 두고 음성과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히타치는 마쓰시타, 후지쯔, NEC, 미국의 루슨트, 스웨덴의 에릭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컨소시엄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CDMA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퀄컴과의 제휴로 IMT2000사업경쟁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